

오경에 나타난 톨레도트 양식 (Toledot Formula) 연구

강화구
고신대학교

• 한글초록

본 논문은 오경 안에 나타나는 톨레도트 양식(Toledot Formula)을 연구한다. 톨레도트 양식은 구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의 족보니라”라고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표현을 일컫는다. 히브리어에서 족보를 뜻하는 톨레도트라는 단어 자체는 총 39회 나타나지만, 이 톨레도트 양식은 구약 성경에서 13회, 그리고 창세기에서만 11회 사용된다. 창세기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톨레도트 양식이다. 이 글에서 톨레도트 양식은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으로 규정된다. 첫째, 톨레도트 양식이 이야기 단원을 가져오는 것과 족보 단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족보는 직계와 방계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접속사 바브를 포함하는 등위절과 바브가 없

는 독립절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구문론적인 특징을 통해 본 논문은 창세기의 구조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톨레도트 양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창세기의 주요 주제인 약속의 후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여기에 더해 이 논문은 창세기의 주요한 구조적 특징인 톨레도트 양식이 민수기 3:1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유와 그 의도에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오경 전체에서 저자는 12번의 톨레도트 양식을 사용하면서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아담과 노아,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논문은 주장한다. 결국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인류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주제어: 톨레도트 양식, 창세기의 구조, 민수기3:1, 족보, 아론과 모세의 족보

I. 서론

창세기에 여러 차례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의 주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다. 하지만, 학계에서나 일선 교회 현실에서도 족보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성도들은 발음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가고 대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에 관심을 기울일 뿐, 본문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옛 선인들의 족보와 이름들은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문법적인 측면들을 다루는 출판 서적들 중에서 성경의 족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한 장이라도 할애해서 안내하는 책들

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¹ 이야기 장르가 가지고 있는 흥미를 족보에서 찾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있는 여러 족보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 장르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세기는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 일치가 있다. “이것은 ~의 족보니라(וְזֶה הַמִּשְׁפָּחָה)”라는 전형적인 표현이 창세기에 총 11회 등장하고 있으며, 이 표현은 창세기의 거대 단위를 나누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구문의 반복 패턴에 따라 창세기의 구조와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견이 있어왔다.² 창세기는 몇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을까?³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톨레도트 양식(Toledot formula)은 실제로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에 대

해 답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 오경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문제는 또 있다. 족보 양식은 창세기에서 11번 등장하는데, 오경 안에서는 유일하게 민수기 3:1에서 다시 등장하고 룯기 4:18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톨레도트 양식이 창세기의 전형적인 표현이며, 창세기 주제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면, 민수기 3:1에 유일하게 한 번 더 나타나는 이 족보 양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경의 저자는 창세기에서만 독특하게 사용하던 족보 양식을 특별히 민수기 3:1에서만 다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글에서 시도하는 일이다.

오랫동안 창세기 연구에 중요한 관심사였던 문서 가설(Documentary Hypothesis)에 따르면 족보 단원들은 주로 P 혹은 J 문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통된 의견을 찾기는 어렵다. 벨하우젠의 이론을 따라, 많은 학자들이 족보를 대체로 P문서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곧장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는 경우는 J문서로 간주한다. 비록 J 문서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뒤 이어 나타나는 이야기가 대체로 E 문서에 속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예, 창37:2).⁴ 이 글에서 우리는 오경 전체를 한 사람의 저작물로 간주하고 접근하고자 한다.⁵ 창세기에 등장하는

1 이 분야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알터의 책은 창세기의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세기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로버트 알터, 『성서의 이야기 기술』 황규홍, 박영희, 정미홍 공역(서울: 아모르문디, 2015)를 보라

2 먼저 톨레도트 양식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치인지, 마감하는 장치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 논문은 톨레도트 양식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목과도 같다는 입장에 있다. 이럴 경우 창1:1-2:3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2:4가 톨레도트 단락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창1:1-2:3은 창세기의 서론으로 역할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각주 17번을 참조하라. 다른 한편으로 John Sailhamer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창세기 혹은 오경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 그는 오경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제목이 민수기 3장까지만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톨레도트 양식조차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John H. Sailhamer,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Revelation, Composition, and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360. 자신은 2:4a를 비롯해서 톨레도트 양식이 앞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본다.

3 전통적으로 창세기는 크게 1-11장과 12-50장으로 나뉘고, 각각은 또한 네 개의 작은 단위를 가진다고 본다. David W. Cotter, *Genesis*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1;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3)을 참조하라. 고든 웬햄(Gordon Wenham)은 창세기의 거대 단락이 1장- 세상의 기원, 2-11장 민족들의 기원, 그리고 12-50장 이스라엘의 기원으로 나뉜다.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1 (Waco: Word Books, 1987), xxii. 천사무엘은 창세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서, 그의 주석에서는 태고사,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야기로 네개의 단락으로 구분했다. 천사무엘, 『창세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4-38. 물론 이들 모두는 창세기의 구조에 있어서 열개의 톨레도트 양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4 최근 리차드 에이버백(Richard E. Averbeck)은 톨레도트 구문과 뒤 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자료라는 기존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그 둘이 원래부터 하나의 단위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의미있는 주장을 펼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보라. Richard E. Averbeck, "Reading the Torah in a Better Way: Unity and Diversity in Text, Genre, and Compositional History,"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9, 미간행), 1-23. 특히 10-15페이지를 참조하라.

5 R. N Whybray,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53; Sheffield: JSOT Press, 1994), 221-35. 와이브레이는 오경의 모세 저작권은 물론이고 오경이 주전 6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오경을 종교 소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p. 240). 하지만 비평학자로서 그는 오경 전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오경은 한 사람의 저자가 기록한 통일된 저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문서 가설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평가는 다음을 참조하라. M. H. Woudstra, "The Toledot of the Book of Genesis and Their Redemptive-Historical Significance," *Calvin Theological Journal* 5 (1970): 184-89.

모든 족보가 톨레도트 양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필요할 경우 그들도 언급하겠지만, 기본적인 관심은 특별하게 톨레도트 양식이 사용된 용례들에 있다.

II. 톨레도트 양식(Toledot Formula)의 의미

1. 톨레도트

톨레도트(*toledot*)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39회 등장하고, 특히 창세기에서 13회 등장한다.⁶ 족보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인데, 계보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 혹은 혈연관계나 학풍, 사조 따위가 계승되어온 연속성”이라는 뜻을 가진다.⁷ 족보와 계보 모두 기본적인 의미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을 기록한 책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계보, 대략, 후예, 약전 등의 표현으로 번역되어 왔으나, 개역 개정판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족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다.⁸ 하지만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문맥에서 단순히 족보라는 단어로만 번역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족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집안의 혈통 관계를 적은 책이라는 점에서 볼 때, 몇몇 족보 양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족보 양식은 단순히 자신들의 목록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목록 대신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족보 양식 바로 뒤에 긴 이야기가 나올 경우 단순히 “족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

연스럽지 않기에 족보라는 표현 보다는 오히려 기사(account), 세대(generation), 가족사(family history) 등의 단어가 이야기 단위를 가지고 있는 족보 양식에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톨레도트 양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2: 4에서부터 톨레도트를 단순히 족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개역개정판은 이를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번역해 두었다.⁹ 또한 민수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מִנְחָלָם* (their toledot)의 경우는 개역개정판에서도 단순히 족보라고 하지 않고 “난 자”라고 번역했다. 톨레도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단순히 톨레도트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준다는 측면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יָלַד*인데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יָלַד*라는 단어에서 기원한다. 이 단어는 보통 “낳다(give birth)” 혹은 “아버지가 되다(beget)”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족보의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총 492회가 나오지만, 창세기 (170)와 역대기 (117)에서 약 60% 정도 사용된다.¹⁰ “*יָלַד*”가 주로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톨레도트라는 단어 자체는 창세기의 주요한 관심인 후손(seed)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¹¹ 그러므로 “이것은 X의 톨레도트”라고 언급될 때 톨레도트는 X라는 인물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X가 톨레도트 명칭의 주인같지만, 실제 톨레도트 단위의 주요한 내용은 X의 자녀들에 대

6 창2:4; 5:1; 6:9; 10:1, 32; 11:10; 11:27; 25:12, 13; 25:19; 36:1, 9; 37:2; 출6:16, 19; 28:10; 민1: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2; 3:1; 룻4:18; 대상1:29; 5:7; 7:2, 4, 9; 8:28; 9:9, 34; 26:31.

7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검색 (2019. 2. 12일).

8 예외적으로 창2:4는 내력, 5:1은 계보, 그리고 민3:1은 낳은 자로 번역했다. 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뜻이기도 하다.

9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점을 영어 번역본들은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역본들도 문맥에 따라 번역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번역상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David Carr,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Revisited: A Synchronic Analysis of Patterns in Genesis as Part of the Torah (Part On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0 (1998): 166–67.

10 Schreiner and Botterweck, “*יָלַד*,”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6 (Grand Rapids: Eerdmans, 1990), 76–77.

11 T. Desmond Alexander, “Genealogies, Seed and the Compositional Unity of Genesis,” *Tyndale Bulletin* 44, no. 2 (1993): 255–70.

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에 톨레도트는 X와 그 후손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역할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¹² 그렇기 때문에 X는 바로 앞에 나오는 톨레도트 양식에 이미 언급되어 있거나 앞 선 문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³

2. 이것은 (אֵלֶּה)

톨레도트라는 단어와 함께 톨레도트 양식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אֵלֶּה다. 창세기 5장 1절은 변형된 형태로 הָאֵלֶּה가 사용된다 (וְזֶה סֵפֶר תּוֹלְדֹת אָדָם). 매튜 토마스는 이 구문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요약한다.¹⁴

- 1) 톨레도트 양식은 명사문장이다
- 2) 톨레도트 양식은 지시 대명사로 시작한다
- 3) 톨레도트 양식에 사용된 명사 문장에는 고유 명사나 명사절이 뒤 따른다.

특히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 הָאֵלֶּה, וְזֶה 또는 אֵלֶּה로 시작할 경우 이들은 타이틀로 기능한다.¹⁵ 사실 톨레도트 양식이 문장에서 하나의 타이틀로 기능하는지 마지막 요약과 결론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

쟁이 있어왔다. 이는 창세기의 톨레도트 뿐만 아니라 민수기 3장의 톨레도트에도 동일하다. 롤란드 K. 헤리슨은 창세기의 열 한개 톨레도트는 물론이요 민수기 3장의 톨레도트 역시 하나의 결론(colophon)으로 역할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¹⁶ 하지만 다수 학자들은 이 톨레도트 양식이 하나의 타이틀로서 역할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¹⁷

요약하면, 톨레도트 양식으로 사용된 “이것은 X의 톨레도트”라고 표현된 것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장치로 타이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X라는 앞 단락에서 소개되었던 인물과 그 이후에 등장할 후손들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역할한다. 이렇게 톨레도트 양식은 창세기 전체의 구조적 특징을 제공하고 창세기에 일관성을 부여한다. 또한 톨레도트 양식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III. 톨레도트 양식(Toledot Formula)의 형태

창세기에 있는 족보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족보를 기술하는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를 나눠서 논의한다.

12 하지만 X는 그 톨레도트의 제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톨레도트의 마지막에는 X의 죽음을 소개한다. 예외적으로 데라의 톨레도트는 마지막인 25장에서가 아니라, 창11:32에서 데라의 죽음을 소개한다. 이는 아브라함 이야기와의 종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야곱의 톨레도트는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톨레도트에 비하면 야곱 자신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13 Robert B. Robinson, “Literary Functions of the Genealogies of Genesi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8 (1986): 601–602. 로빈슨은 창세기 톨레도트가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것이기에 창세기 전체를 하나의 문학 단위로 이해할 때 창세기 족보는 모든 인류가 확대된 가족임을 알려준다고 말한다.

14 Matthew A. Thomas, *These Are the Generations: Identity, Covenant, and the Toledot Formula*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11), 21–22.

15 Francis I. Andersen,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XIV (Nashville: Abingdon Press, 1970), 40.

16 Roland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abody: Prince Press, 1999), 448–53; 또한 그의 책 *Numbers: An Exegetical Commentary* (Wycliffe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61–63도 참조하라.

17 헤리슨과 와이즈먼의 “결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다음을 보라. Duane A. Garrett, *Rethinking Genesis: The Sources and Authorship of the First Book of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94–96. Thomas, *These are the Generations*, 37–41. 이외에도 Cassuto, Woudstra, Cross, Waltke, Cotter, McKeown, Arnold, 그리고 Boda등을 들 수 있다. 결론(colophon)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von Rad, Coats, Sailhamer, Fokkelman, Westermann 등이 있다. 전체 서지 정보는 Hwagu Kang, *Reading the Wife/Sister Narratives in Genesis: A Textlinguistic and Type-Scene Analysis*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47을 보라.

1. 족보(Genealogy)와 이야기 톨레도트(Narrative Toledot)

톨레도트 양식은 이 양식에 뒤따르는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톨레도트 양식에 짧은 족보 목록이 따르는 경우와 긴 이야기 단원이 나오는 경우다. 창세기에 나오는 열 한 개의 톨레도트 양식 중에 족보 목록을 포함하는 톨레도트 양식은 아담의 톨레도트(창5:1-6:8),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창10:1-11:9), 셈의 톨레도트(창11:10-26), 이스마엘의 톨레도트(창25:12-18), 그리고 에서의 톨레도트(창36:1-8과 창36:9-37:1)로 모두 여섯개다. 아담과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가 마지막에 작은 이야기 단원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지만 일반적으로 족보를 포함하는 톨레도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대로 긴 이야기 단원이 뒤 따르는 톨레도트는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창2:4-4:26), 노아의 톨레도트(창6:9-9:29), 데라의 톨레도트(창11:27-25:11), 이삭의 톨레도트(창25:19-35:29), 그리고 야곱의 톨레도트(창37:2-50:26)로 모두 다섯개다. 각각의 톨레도트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창1:1-2:3	7일간의 천지 창조	서론
창2:4-4:26	천지의 톨레도트	이야기
창 5:1-6:8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 + 짧은 이야기
창6:9-9:29	노아의 톨레도트	이야기
창10:1-11:9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	족보 + 짧은 이야기
창11:10-26	셈의 톨레도트	족보
창11:27-25:11	데라의 톨레도트	이야기
창25:12-18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족보
창25:19-35:29	이삭의 톨레도트	이야기
창36:1-8, 9-37:1	에서의 톨레도트	족보
창37:2-50:26	야곱의 톨레도트	이야기

〈표1〉 족보와 이야기의 교차구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톨레도트 구조는 창세기에 등장하

는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 톨레도트의 형식으로 전개 되는 가운데, 족보 톨레도트가 일종의 전환 단원으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형국이다. 이야기 톨레도트의 흐름을 따라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는 천지창조 - 아담 - 노아 - 데라 (아브라함) - 이삭 - 야곱이라는 중심 라인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하지만, 톨레도트 양식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형식을 단순히 족보와 이야기 단원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살펴야 할 또 다른 형식은 바로 직계와 방계 톨레도트다.

2. 직계(Linear)와 방계 톨레도트(Segmented Toledot)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그 의미는 동일하다. 로버트 윌슨(Robert R. Wilson)은 직계족보와 방계 족보로 구분했지만, 차일즈의 경우 수직(Vertical)과 수평(Horizontal)로 구분하기를 좋아한다.¹⁸ 직계 혹은 수직적 족보의 특징은 족보에 등장하는 후손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오직 한 사람의 후손만을 언급하면서 계보가 아래로 내려간다는데 있다. 반면 방계 혹은 수평적 족보는 조상의 후손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 형제들을 함께 나열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톨레도트 양식 중에서 직계 족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담(창5:1-6:8)과 셈의 톨레도트(창11:10-26) 뿐이다.¹⁹

그외에도 직계 족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창세기에 몇 차례 더 발견된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4:17-24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다. 이

18 Robert R. Wilson,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7), 8-10;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145-50.

19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타난 직계 족보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는 다음을 보라. Gerhard F. Hasel, "The Genealogies of Gen 5 and 11 and their Alleged Babylonian Background,"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16 no. 2 (1978), 361-74.

죽보는 가인으로부터 칠대손 라멕에 이르기까지의 가계를 간단하게 요약한다. 형식상으로는 직계 족보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우선 톨레도트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직계 톨레도트와는 달리 마지막 가계인 라멕의 아들들은 이후 내러티브 전개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²⁰ 구조적으로는 가인을 언급함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의도가 우선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가인의 직계 족보는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비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름의 유사성은 표 2를 참조). 그 다음으로 창세기 36:31-39절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목록을 소개하는 단원이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왕들의 목록 역시 형식상으로는 직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에돔 왕들의 목록에는 왕과 그 다음 왕 사이의 혈연적 후손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목록 역시 톨레도트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담과 셈의 톨레도트는 여러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 우선 두 톨레도트는 모두 열대로 구성되어 있다. 두 톨레도트는 모두 열대로 구성되어 있다.²¹ 둘째, 두 톨레도트는 각각의 대에서 단 한 명의 자손만 언급하다가, 마지막 가계에 이르러 세 사람을 언급한다. 이들중 한 사람은 다음 톨레도트의 중심 인물이 된다. 아담의 톨레도트는 노아가 셈, 함, 그리고 야벳을 낳았다고 언급하고(창5:32), 셈의 톨레도트는 나홀의 세 아들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을 소개한다(창11:26). 세 자녀가 언급되는 순서는 아마도 출생순이 아니라, 그 다음 톨레도트에서 중요한 인물을 우선으로 세운 것 같다. 셋째, 기술하는 형식도 유사하다. 아담의 족보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A는 나이 X가 되었을 때 B를 낳았다.

A는 B를 낳은 이후 Y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A는 X+Y년을 살았고, 죽었다.

그에 비해 셈의 족보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A는 나이 X세가 되었을 때 B를 낳았다.

B를 낳은 후 Y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기술양식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분명해 보인다. 우선 아담의 톨레도트에는 그들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언급하지만, 셈의 톨레도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아담의 톨레도트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전형적인 어구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셈의 톨레도트에는 그 누구의 죽음도 언급하지 않는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차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담의 족보를 뒤 따르는 짧은 이야기 단원은 아담의 후손들이 심각하게 타락했고, 곧 홍수 심판을 불러일으켜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처해진 것과 달리, 셈의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아브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²²

만일 톨레도트 구문이 족보 톨레도트이면서 방계 족보를 나타낸다면, 이는 창세기에서는 중심인물에서 배제되는 족보라고 말할 수 있다.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창10:1-32), 이스마엘의 톨레도트(창25:12-18), 그리고 에서의 톨레도트(창36:1-8, 9-37:1)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그 다음에 이어 나올 족보의 주인이 되는 인물 앞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중심 주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로 이후 내러티브에서 배제된다.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는 바로 뒤이어 나올

20 Thomas, *These Are the Generations*, 94-95.

21 엄밀하게 셈의 족보는 10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실제 숫자는 9대인데, 10대를 맞추려면 노아를 포함시키거나 아브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아담의 족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22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1』권대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595-600.

셈의 톨레도트 앞에, 이스마엘의 톨레도트는 이삭의 톨레도트 앞에, 그리고 예서의 톨레도트는 야곱의 톨레도트 앞에 위치한다. 열방의 톨레도트가 배제의 이야기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어쨌든 셈의 톨레도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기본적으로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아의 자손들을 언급하는 다른 문맥과 다르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앞선 문맥에서 보통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의 순서로 나타난다(창6:10; 9:18). 하지만 창세기 10장에서는 야벳, 함, 그리고 셈의 순서를 따른다. 이것은 먼저 이후 문맥에서 배제될 사람과 그 가계를 소개하고, 그 이후 문맥에서 역할을 하는 셈의 가계를 가장 뒤에 배치한 것이다. 이후 창세기 문맥에서 야벳은 등장하지 않으며, 함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창세기 10장의 톨레도트는 우선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야벳과 함을 먼저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톨레도트와는 다른 가계를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족보의 목록 자체로 방계 족보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0장 21-31절에 나오는 셈의 후손은 벨레의 아우 욥단의 가계를 따른다(창10:25).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가문은 셈의 톨레도트에서 말하듯 욥단이 아니라 벨레의 가계를 따른다(창11:18-19).²³ 이처럼 창세기 전체 흐름에서 톨레도트는 배제와 선택이라는 순서를 따라 구성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톨레도트 양식은 직계 족보를 가진 아담과 셈의 톨레도트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둘은 구조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유사하게 의도된 것이며, 족보 타이틀의 인물과 족보의 마지막 인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아담은 곧장 노아와 그 아들들 특히 셈에게로 연결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셈은 데라와 그 아들들 특히 아브람에게 연결된다. 또한 아담의 톨레도트는 직계 족보를 나열

하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창5:1-2) 이것은 명백하게 창세기 1-2장의 창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담의 족보는 또한 창조와의 연결점들을 의도하고 있기에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창조로부터 인류, 인류로부터 셈, 그리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독립절과 등위절 (Independent and Coordinate)

톨레도트 양식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근래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독립 톨레도트는 접속사 바브가 없는 것인데 창세기 톨레도트에서는 하늘과 땅, 아담, 노아, 셈, 그리고 야곱의 톨레도트가 여기 해당된다(창2:4; 5:1; 6:9; 11:10; 그리고 37:2). 등위 톨레도트는 전형적인 톨레도트 양식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가 포함된 경우로 나머지 6개의 톨레도트가 여기 해당되고(창10:1; 11:27; 25:12, 19; 36:1, 9), 창세기를 넘어서는 민수기 3:1과 룻기4:18이 모두 등위 톨레도트에 해당된다. 불행하게도 한글 성경은 접속사 바브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번역했고, 다수의 영어 역본도 접속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제이슨 데루치(Jason S. Derouchie)는 번역본들이 접속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제시한다.²⁴

	2:4 ø	5:1 ø	6:9 ø	10:1 waw	11:10 ø	11:27 waw	25:12 waw	25:19 waw	36:1 waw	36:9 waw	37:2 ø
LXX											
NASB, NASU				Now		Now	Now	Now	Now	Then	
ASV, KJV				Now		Now	Now	And	Now	And	
Alter				And		And	And	And	And	And	
NKJV				Now			Now		Now	And	

24 Jason S. Derouchie, "The Blessing—Commission, The Promised Offspring, and the Toledot Structure of Genesi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6, no. 2 (2013): 231.

23 Kang, *Reading the Wife/Sister Narratives in Genesis*, 53–54. N. 46.

JPS						Now				Then	Then
Wenham						Now	And				
RSV, NRSV, ESV, von Rad						Now					
Leupold									And		
REV											And
Speiser											Then
NIV, NET, NIV11, NAB, NCV, NJB, NLT, HCSB, CEB, Westerman, Hamilton, Waltke											

〈표3〉

위에서 언급한 대로, 톨레도트 양식 자체는 이전의 이야기와 이후 이야기 사이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접속사 바브의 존재는 앞선 이야기와의 관련성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독립절의 경우 구문론적으로 독자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알린다. 이에 대해 매튜 토마스(Matthew Thomas)는 독립절로 구성된 톨레도트들이 창세기 전체는 물론이고 오경의 구조를 재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그 결과 다섯개의 독립절 톨레도트는 창세기의 중심 흐름을 형성하는 반면, 나머지 여섯 개의 등위절 톨레도트는 독립절 톨레도트에 연결된 하부구조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²⁵ 문법적으로 다섯 개의 독립절 톨레도트는 이전의 자료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새로운 단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접속사 바브를 포함하는 등위절 톨레도트는 이

전의 자료에서 이어서 읽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독립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토마스는 다섯 개의 독립절 톨레도트와 여섯개의 등위절 톨레도트를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조를 재구성한다.²⁶

0	Prologue		Gen 1:1
1	toledot of the heavens and earth ...	אֱלֹהִים תּוֹלְדוֹת	2:4
2	Book of the toledot of Adam ...	זֶה סֵפֶר תּוֹלְדֹת	5:1
3	toledot of Noah ...	אֵלֶּה תּוֹלְדוֹת	6:9
	a toledot of Shem, Ham, and Japheth...	אֵלֶּה תּוֹלְדוֹת	10:1
4	toledot of Shem ...	אֵלֶּה תּוֹלְדוֹת	11:10
	a toledot of Terah ...	וְאֵלֶּה תּוֹלְדֹת	11:27
	b toledot of Ishmael ...	וְאֵלֶּה תּוֹלְדֹת	25:12
	c toledot of Isaac ...	וְאֵלֶּה תּוֹלְדֹת	25:19
	d toledot of Esau ...	וְאֵלֶּה תּוֹלְדֹת	36:1
	e toledot of Esau (#2) ...	וְאֵלֶּה תּוֹלְדֹת	36:9
5	toledot of Jacob ...	אֵלֶּה תּוֹלְדוֹת	37:2

이 표를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축보 톨레도트 양식과 직계/방계 톨레도트 양식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보자. 직계 톨레도트 양식인 아담과 셈의 톨레도트는 모두 독립절인 반면, 방계 톨레도트 양식은 모두 등위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방계 톨레도트는 등위절일 뿐만 아

25 Thomas, *These Are the Generations*, 124.

26 Thomas, 71–73; Derouchie, “The Blessing–Commission,” 229–35; Jared M. August, “The Toledot Structure of Genesis: Hope of Promise,” *Bibliotheca Sacra* 174 (2017): 269–70. 몇몇 학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독립절과 등위절에 따라 톨레도트를 구분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최근에는 모두 토마스의 구분을 따른다.

나라, 단순한 족보 톨레도트일 뿐 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야기를 포함하는 톨레도트 양식들 중에서는 데라와 이삭의 톨레도트가 등위절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썸의 톨레도트의 하부 구조를 형성한다.

만약 이런 흐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썸의 톨레도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를 두 개의 거대 단락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창세기 1장부터 썸의 톨레도트까지를 첫 번째 전역사 단락으로 나누고, 데라의 톨레도트로부터 족장시대로 구분한다. 출간된 대다수의 책들이 창세기를 간단하게 둘로 구분할 때 창세기 1-11장의 전역사, 창세기 12-50장의 족장시대로 나눈다. 좀 더 민감하게 구분한 케네스 매튜스(Kenneth Matthews)도 그의 주석 창세기 I을 창세기 11: 26까지만 주석했다.²⁷ 하지만 독립/등위 구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데라의 톨레도트는 하나의 독립된 시작이 될 수 없으며, 그 시작은 오히려 썸의 톨레도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세기의 두 번째 거대 단락인 족장시대의 시작은 데라의 톨레도트가 시작되는 11장 27절이 아니라, 썸의 족보가 시작되는 11장 10절로 수정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창세기 11장 10절이 하나의 독립절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에서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아담의 톨레도트처럼 직계 족보 톨레도트라는 점도 이 주장을 좀 더 뒷받침한다. 두 개의 직계 족보 톨레도트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노아의 아들 썸으로부터 아브람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썸의 톨레도트는 확실히 아브람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보아야 한다.²⁸

27 심지어 월터 브루거만은 그의 유명한 창세기 주석에서 썸의 톨레도트 단원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2).

28 Kang, *Reading the Wife/Sister Narratives in Genesis*, 48-51;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August, "The Toledot Structure of Genesis," 275-79; David J. A. Clines, *The Theme of the Pentateu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마지막으로,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톨레도트 양식은 족보와 이야기 톨레도트가 교차적으로 반복되는데, 특별히 썸의 톨레도트에 있어서는 그 패턴이 깨어진다. 족보 톨레도트인 썸, 함, 야벳의 톨레도트에 뒤이어 나오는 썸의 톨레도트 역시 족보 톨레도트이다. 사실상 썸의 족보가 두 번에 걸쳐 나온 것이다. 아마도 썸의 톨레도트는 다른 족보 톨레도트와는 달리 이후 단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론으로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²⁹

그렇다면 왜 썸의 톨레도트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베푸신 약속과 관련된다. 썸의 톨레도트가 하나의 거대 단위로 포함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7장 1절까지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다. 창세기 37장 2절은 야곱의 톨레도트인데 이것은 독립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톨레도트는 타이틀의 주인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녀들과 가족들 이야기가 중심이다. 야곱의 톨레도트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읽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야기며 중심인물은 유다와 요셉이다.³⁰ 성경이 특별히 족장이라고 구별하는 세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그

Series 10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78), 78.

29 Wenham, *Genesis 1-15*, 248.

30 비록 사람들이 야곱의 톨레도트라는 이름보다는 "요셉 이야기"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기는 하지만, 야곱의 톨레도트를 요셉 이야기로 읽을 때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요셉 이야기로 이해했기 때문에 요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이차적인 자료로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월터 브루거만같은 학자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창세기 38장을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야곱의 톨레도트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유다의 이야기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이런 관점이 야곱의 톨레도트에서 유다가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창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 44장의 유다의 연설, 49장에서 유다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축복 등). 또한 족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데라의 톨레도트이기 때문에 창세기 13-14, 18-19장에 걸쳐 나오는 롯 이야기, 나홀의 족보 (창22:20-24),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창24장) 등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없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Thomas, *These are the Generations*, 49-51을 참조하라. 토마스는 보다 중요한 이유를 문학적 긴장관계에서 찾는다.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존재한다면 톨레도트 양식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당연히 이삭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데라의 톨레도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리고 야곱이다. 실제로 요셉은 앞의 세 사람과 명백히 구별된다. 역사적으로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신다 (출2:24; 6:3, 9; 33:1; 레26:42; 신1:8; 9:27; 마8:11; 눅13:28; 행7:3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썸의 톨레도트와 야곱의 톨레도트 즉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와 근본적인 차이다. 그러므로 썸의 톨레도트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베푸신 언약이라는 주제로 묶이고, 야곱의 톨레도트는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의 부분적 성취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취를 소망하게 한다.

이렇게 다섯 개의 독립절에 근거해서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제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서론 천지창조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창2:4-4:26)창조 (땅)

가인의 족보 (창4:17-24)

배제

아담의 톨레도트 (창5:1-6:8)

첫 번째 인류

노아의 톨레도트 (창6:9-9:29)

새로운 인류

썸, 함, 야벳의 톨레도트

배제

썸의 톨레도트 (창11:10-37:1)

이스라엘의 족장들

데라의 톨레도트 (창11:27-25:11)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창25:12-18)

배제

이삭의 톨레도트 (창25:19-35:29)

이삭/야곱

가? 그렇다면 그 약속의 씨는 누구인가? 등이 가장 중요한 주제요, 긴장이기에,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라고 이름짓는 순간 문학적 긴장과 재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데라의 톨레도트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중심인물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로 이름지을 수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이 톨레도트 양식은 그 양식의 타이틀에 언급된 인물은 그 톨레도트의 중심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르손 헤프너는 데라의 톨레도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데라의 톨레도트가 창세기의 중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Gershon Hepner, "The Begetttings of Terah and the Structure of Genesis and the Tetracheuch: A Zadokite Polemic," *Revue Biblique* 111 (2004): 31-60.

에서의 톨레도트 (창36:1-8, 9-37:1)

배제

야곱의 톨레도트 (창37:2-50:26)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

이 흐름으로 볼 때,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톨레도트 구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섯 개의 중심 톨레도트 구문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범위를 좁혀가고 계신다. 주요한 톨레도트의 전환점마다 배제를 목표로 하는 톨레도트를 삽입하여 배제와 선택 (Narrowing of focus)을 반복한다.

IV.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 (민3:1-4)

1. 민수기에 나타난 톨레도트 양식

톨레도트 양식이 창세기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대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 전형적인 톨레도트 양식(Toledot formula)이 창세기를 넘어 민수기 3:1에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경에서는 민수기 3:1이 유일하다. 오경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던 문학 장치를 오직 민수기 3:1에서만 다시 사용했을까? 민수기 3:1에서만 언급되고 있기에 톨레도트 양식을 가지고 오경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존 세일헤머는 역으로 창세기의 톨레도트 양식 역시 창세기에서 중요한 틀을 형성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세일헤머는 오경 전체의 구조적 통일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만 적용되는 구조 형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것 같다.³¹ 하지만 창세기의 구조적 통

31 John H. Sailhamer, *Genesis*, ed. Tremper Longman III and David E. Garland, Revised

일성을 전제하고 저자가 창세기에서 사용했던 독특한 표현을 민수기에서 한 차례 더 사용하기로 한데는 보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민수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는 사실 아론 한 사람과 그 아들들만 언급하기 때문에 족보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민수기는 오직 3:1에서만 유일하게 톨레도트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무시해선 안된다. 민수기 1:20-46에 나타난 지파별 인구조사에서 톨레도트 양식은 아니지만,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1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민1: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2). 민수기 1장의 지파별 계수 목록에 레위지파는 제외되었다. 곧 이어서 인구조사에서 제외시켰던 레위지파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뒤 따른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본문은 “톨레도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민3:1). 만일 저자가 민수기 3:1에서 단순한 목록 외에 특별히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민수기 1장에서 반복해서 사용해 오듯이 단순히 “톨레도트”라는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민수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와 민수기 3-4장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인구조사는 아래와 같이 평행을 이룬다.

인구조사를 위한 지도자를 세움 (1:1-15)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 (3:1-4)
 열두 지파의 인구 조사 (1:17-46) 레위인의 계수와 의무 (3:5-4:49)
 레위인의 의무 (1:47-54) 레위인의 의무 (3:5-10)

Edition,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 (Grand Rapids: Zondervan, 2008), 24. 창세기가 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세 일해머의 입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창세기 뿐만 아니라 오경의 각권을 통일된 하나의 책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의 책이 가지는 특별한 구조적 특징이나 형태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레위지파 계수 (3:11-50)

회막봉사를 위한 계수 (4:1-49)

2. 모세와 아론

민수기 3:1의 톨레도트 양식은 특별히 아론과 모세에게 주어진다. 갑작스럽게 모세가 등장한 것 때문에 논쟁이 있다. 다수의 다른 문맥에서 두 사람이 언급될 때면 주로 “모세와 아론”인데 왜 여기서는 굳이 “아론과 모세”라고 되어 있을까? 왕대일은 족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태어난 순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순서가 출생의 순서만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³²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들만 본다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문맥에서 그 순서는 “모세와 아론”인 반면, 오직 족보와 관련된 문맥에서는 “아론과 모세”의 순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출6:20; 민26:59).³³ 하지만 다른 족보에까지 확대한다면 이름의 순서가 출생 순서라고 확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물들의 이름은 오히려 중요도 혹은 그 족보의 우선된 의도에 따라 바뀐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의 순서를 따르다가도, 창세기 10장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따라 야벳, 함, 셈의 순서를 따라 족보가 나열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1:26에 등장하는 데라의 세 아들들은 아브람, 나홀, 하란의 순서인데, 아마도 나이순이라기 보다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하게될 역할의 중요도를 따랐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민수기 3:1에서 “아론과 모세”라고 언급한 이유는 바로 다음 장면의 초점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모세의 가계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32 왕대일, 『민수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18.

33 R. Dennis Cole, *Numbers*, vol. 2000, The New American Commentary 3B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2000), 91. 모세와 아론이 함께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총 78회 등장하는데 아론은 오직 출6:20; 민3:1; 26:59; 대상5:29; 25:13절에서만 앞서고 이들은 모두 족보다.

왜 굳이 여기 모세가 들어 있을까? 이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 “모세”라는 표현은 후대의 삽입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³⁴ 본문에서는 단순히 모세의 이름만 언급되지 않고 모세에게 귀속되는 상황절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별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론의 가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모세의 역할을 언급한 셈이다.

V. 오경 안에서 민수기 톨레도트의 역할

1. 천지의 톨레도트와의 관계성

톨레도트 양식에 있어서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것은 바로 천지의 톨레도트(창2:4)다. 첫째, 톨레도트 양식에 “아론과 모세”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대상이 존재한다.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하늘이 배제되고 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에서는 족보에 있어서 모세는 배제되고 아론의 족보에만 초점을 맞춘다. 둘째, 이 둘은 모두 상황절을 포함한다. 문법적으로 볼 때 오경에 등장하는 12개의 톨레도트 양식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³⁵

34 Sven Tengström, *Die Toledotformel Und Die Literarische Struktur Der Priesterlichen Erweiterungsschicht Im Pentateuch*,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7 (Uppsala: CWK Gleerup, 1976), 55. 그리고 BHS 역시 모세를 제외한 수정된 독법을 제시한다.

35 Hepner, “The Begetttings of Terah,” 36–39. 헤프너는 12라는 숫자에 관심이 많다. 톨레도트 구문을 11+1로 언급하고, 이에 맞춰 민수기 1–3장이 11개의 톨레도트와 12번째 톨레도트 양식(3:1)이 산술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오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11+1 용례들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톨레도트 구문의 중심이 데라의 톨레도트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상황절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창 1:1–3절과 2:4–7절의 상관관계다. 톨레도트 양식을 타이틀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창세기 1장1절의 기능을 이해하는데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천지의 톨레도트 양식은 1:1절과 연결되고, 1:2절과 2:5–6절은 모두 상황절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1:3과 2:7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이어진다.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1」,

주제의 흐름을 볼 때도 오경 안에 있는 첫 번째와 마지막 톨레도트 양식은 서로 연결된다.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창2:15).³⁶ 에덴 동산은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주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소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³⁷ 비록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시며 거니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있었다(창3:8). 더 나아가 에덴 동산은 이어 나오는 성막과 성전의 이미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³⁸ 그러므로 단순히 말하자면, 첫 번째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당신의 거처인 성소를 마련하시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인류를 두신 이야기다. 만일 민수기 3:1의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가 오경에 언급된 마지막 톨레도트이고, 패턴의 유사성을 통해 첫 번째 톨레도트와 연결할 수 있다면,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는 첫 번째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와도 주제적

226–28, 를 보라.

36 Gregory K. Beale,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17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66–67. 경작하고 지키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15회 등장한다.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할 때 일반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다. 만일 이 두 단어가 제사장과 관련될 때면 이 단어들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된다.

37 Gordon J. Wenham, “Sanctuary Symbolism in the Garden of Eden Story,” in *I Studied Inscriptions Form Before the Flood”: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and Linguistic Approaches to Genesis 1–11*, ed. Richard S. Hess and David Toshio Tsumura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399. Meredith G. Kline은 에덴동산은 하늘 성전의 지상 축소판이라고 주장한다.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Eugene: Wipha & Stock, 2006), 49.

3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Gregory K. Beale and Mitchell Kim, *God Dwells Among Us: Expanding Eden to the Ends of the Earth* (Downers Grove: IVP Books, 2014), 18; T. Desmond Alexander, *From Eden to the New Jerusale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08), 20–24; Beale,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66–80.

으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덴에서의 사명에 실패함으로 쫓겨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베풀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성막에서 수종들 수 있도록 하신다. 그리고 이들은 에덴에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수행해야 했던 그 사명을 회복시키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는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를 성취시키는 것이며, 모세로부터 전달된 율법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³⁹

2. 구문론적 이해

창세기에 나온 톨레도트 양식을 따라 민수기 3:1에 사용된 표현(וְאֵלֶּה הַיְּלֵדֹת אֲהֵרֹן)을 이해하면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는 접속사 바브를 가지고 있기에 등위절이 포함된 톨레도트다. 이는 바로 앞에 있는 톨레도트 양식 즉 야곱의 톨레도트에서 이어진다는 뜻이다. 톨레도트 양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아론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레위의 후손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는 출애굽기 6:14-25절에서 아론의 후손은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민수기 3:1의 톨레도트에서는 아론의 후손들을 나열하려는 의도가 없다. 대신 2-4절에서는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2-4a), 대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려준다(4b).⁴⁰ 이것은 짧지만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가계에서 배제되는 인물과 선택되는 인물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창세기에서

지속적으로 후손들을 좁혀가는 흐름을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 배제와 선택의 흐름은 창세기에 있는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창10)와 바로 이어 나오는 셈의 톨레도트(창11:10-26)의 흐름과도 유사한 점들이 있다.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트는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후손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목록을 먼저 제시한다. 이 목록에서 야벳과 함의 족속이 배제되었고, 또한 셈의 족속 중에서도 욱단의 가계를 배제했다. 이어 셈의 톨레도트에서 족보는 셈으로부터 아브람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함으로 약속의 후손의 범위를 좁혔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소개하는 열방의 목록에는 이스라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을 소개하는 자리이니 이스라엘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또 당시는 이스라엘 지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보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열방의 목록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 다음 톨레도트 양식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한다.⁴¹ 전형적으로 창세기가 따르고 있는 배제와 선택의 패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계수하는데 이 계수에 저자는 톨레도트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무려 11번이나 사용한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의도적으로 레위지파가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론과 모세의 톨레도트 양식에서 아론의 뒤를 이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인물을 소개한다. 이런 점에서 민수기 3장의 톨레도트 양식은 창세기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로 그 초점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데니스 올슨(Dennis Ols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⁴²

39 Hepner, "The Begettings of Terah," 43-44.

40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레위기 10장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담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서 죽음을 맞이했다.

41 Thomas, *These Are the Generations*, 92.

42 데니스 올슨, 『민수기』(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56-57

이 소위 말하는 수직적인 혹은 직선적인 족보는 약속의 줄기를 하나의 초점으로 점점 더 좁히고 더욱 제한적인 단체로 한정시킨다. 이 진행과정은 광대한 ‘하늘과 땅의 출생’ (창2:4), 그리고 ‘아담의 출생’ (창5:1)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창세기에 있는 출생 형식의 초점은 계속적으로 그 단체와 가족을 좁히고, 좁혀 나가다가 창세기 37:1에 이르러 ‘야곱의 출생’으로 좁혀 진다. 출생 형식에 ‘이것은 아론과 모세의 출생이니라’ 라는 한 단계를 더 첨가시킴으로써 민수기 3:1에 있는 이 형식의 진행이 끝나는 데서 민수기의 저자는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서도, 한 단계 더 좁혀서 아론과 모세의 출생 가운데에서도 제사장과 레위로 좁힌다. 약속의 계보는 계속적으로 백성 가운데에서 더 작은 단체로 중심을 좁힌다.

결국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까지 이르는 것이 창세기의 큰 흐름이었다면, 민수기에 이르러 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제사장과 그들을 돕는 레위지파의 역할을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 창세기의 톨레도트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모세오경 안에 총 열 두 번에 걸쳐 등장하는 전형적인 톨레도트 양식(Toledot Formula)에 대해 살펴 보았다. 톨레도트 양식의 구문론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톨레도트 양식에 따라 창세기의 구조를 재구성하려고 했다. 여기에 더해, 톨레도트 양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오직 창세기에만 국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은 오경이 통일된 하나의 작품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 오경에서만 두드러지던 톨레도트 양식을 민수기 3:1에서 다시 사용한 저자의 의도를 추적하려고 시도했다. 톨레도트 양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

는다. 첫째, 톨레도트 양식은 창세기의 주요한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둘째,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이르기까지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반복함으로 창세기의 주요한 메시지를 형성한다. 셋째, 저자는 이 독특한 양식을 민수기에서 다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시 베푸셨던 에덴의 사명을 성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적 삶 가운데 구현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매튜스, 케네스. 『창세기1』 권대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 알터, 로버트. 『성서의 이야기 기술』 황규홍, 박영희, 정미홍 공역. 서울: 아모르문디, 2015.
- 왕대일, 『민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울슨, 데니스. 『민수기』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천사무엘,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Alexander, T. Desmond. *From Eden to the New Jerusale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08.
- . “Genealogies, Seed and the Compositional Unity of Genesis.” *Tyndale Bulletin* 44, no. 2 (1993): 255–70.
- Andersen, Francis I.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XIV. Nashville: Abingdon Press, 1970.
- August, Jared M. “The Toledot Structure of Genesis: Hope of Promise.” *Bibliotheca Sacra* 174 (2017): 267–82.
- Averbeck, Richard E. “Reading the Torah in a Better Way: Unity and Diversity in Text, Genre, and Compositional History.”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9, 미간행), 1–23.
- Beale, Gregory K.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17.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 Beale, Gregory K., and Mitchell Kim. *God Dwells Among Us: Expanding Eden to the Ends of the Earth*. Downers Grove: IVP Books, 2014.
-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2.
- Carr, David.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Revisited: A Synchronic Analysis of Patterns in Genesis as Part of the Torah (Part On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0 (1998): 159–72.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Clines, David J. A. *The Theme of the Pentateu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0.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78.
- Cole, R. Dennis. *Number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3B.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2000.
- Cotter, David W. *Genesis*.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1.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3.
- Derouchie, Jason S. “The Blessing-Commission, The Promised Offspring, and the Toledot Structure of Genesi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6, no. 2 (2013): 219–47.
- Garrett, Duane A. *Rethinking Genesis: The Sources and Authorship of the First Book of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 Harrison, Roland 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abody: Prince Press, 1999.

- . *Numbers: An Exegetical Commentary*. Wycliffe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 Hasel, Gerhard F. "The Genealogies of Gen 5 and 11 and their Alleged Babylonian Background."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16 no. 2 (1978): 361-74.
- Hepner, Gershon. "The Begettings of Terah and the Structure of Genesis and the Tetrateuch: A Zadokite Polemic." *Revue Biblique* 111 (2004): 31-60.
- Kang, Hwagu. *Reading the Wife/Sister Narratives in Genesis: A Textlinguistic and Type-Scene Analysis*.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 Robinson, Robert B. "Literary Functions of the Genealogies of Genesi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8 (1986): 595-608.
- Sailhamer, John H. *Genesis*. Edited by Tremper Longman III and David E. Garland. Revised Edition.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Revelation, Composition, and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 Tengström, Sven. *Die Toledotformel Und Die Literarische Struktur Der Priesterlichen Erweiterungsschicht Im Pentateuch*.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7. Uppsala: CWK Gleerup, 1976.
- Thomas, Matthew A. *These Are the Generations: Identity, Covenant, and the Toledot Formula*.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11.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1. Waco: Word Books, 1987.
- . "Sanctuary Symbolism in the Garden of Eden Story." In *"I Studied Inscriptions From Before the Flood":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and Linguistic Approaches to Genesis 1-11*, edited by Richard S. Hess and David Toshio Tsumura, 399-404.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 Whybray, R. N.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53. Sheffield: JSOT Press, 1994.
- Wilson, Robert R.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Abstract

A Study on the Toledot Formula in the Pentateuch

Kang, Hwagu
Kosin University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Toledot Formula in the Pentateuch. The formula, which represents the expression “These are the generation of ~”, has been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Genesis scholarships for a long time. The Hebrew word ‘Toledot’ itself occurs 39 times in the Old Testament, whereas the formula only occurs 13 times in the Old Testament, particularly 11 times in Genesis. Not surprisingly, this formula is a significant express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the main thematic stream of Genesis. It is possible to categorize the formula into three: the Toledot formulae followed by narrative or genealogy, Segmented or Lineage Toledot, and Independent or Coordinate Toledot. By exploring these featur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Toledot formula is a crucial function to establish the proper structure of Genesis and that the formula makes us focus on the main theme, that is, the promised seed.

In addition, this study expands its concern to the Pentateuch. In doing so, we are asked why the author of the Pentateuch uses this special expression in Numbers 3:1 once mor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author intended to narrow focus from Creation, Adam, Noah, the Patriarchs, and the twelve tribes

of Israel to Aaronic priesthood by using the specific Toledot formula. The life of Israelites, therefore, placing the tabernacle among their center can be considered as a fulfillment of the mission in Eden, which is given to the first humanity, Adam and Eve.

Key-Words: Toledot formula, the structure of Genesis, Numbers 3:1, Genealogy, genealogy of Aaron and Moses

- 논문접수일(received): 2019년 4월 25일
- 수정접수일(revised): 2019년 6월 25일
- 게재확정일(accepted): 2019년 6월 26일